

폭력 남편에 저항하다 살인자 된 아내

매맞는 아내 방치하는 사회가 낳은 비극

남성들이 자식이나 아내로부터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아버지가 남편의 죽음은 매년 신문지상을 장식해 못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다.

지난 2월 5일 새벽 남편을 벡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남희순(32)씨 사건 역시 일간지 사회면 한 귀퉁이를 장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다른 사회면 단신기사가 그렇듯이 이 사건도 인륜의 파괴, 도덕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사건의 하나로 잠깐 동안의 충격을 주고는 곧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여성의 시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건은 '충격적인 단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은 10여년의 남편의 폭력에 병들어 가던 가정이 '남편 살해'라는 끔찍한 결말을 끝으로 완전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실상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구타와 방항으로 일관한
결혼생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폭력남편들이 그렇듯이 조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친구들에게 매우 현신적이었다. 또 임신중에 폭행의 횟수가 증가했고 아내를 폭행하면서도 결코 이혼은 해주지 않았다.

또 위협에 못 이겨 강제로 이루어진 결혼과 남편의 구타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화되어 갔던 이 가정의 모습도 폭력가정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도 아내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혹은 '여자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식의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끝내라'는 전통적 관념은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 누구도 맞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구타당하는 아내>의 저자 리타-루 클라크는 분명히

남편 조영성(33·운전자) 씨를 넥타이로 목졸라 숨지게 한 남희순 씨는 사건 당시 장이 파열되고 임신 4개월의 태아가 유산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만났을 때에도 남 씨의 얼굴과 팔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처벌만 바라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담담한 목소리로 심경을 털어놓는 남 씨는 그의 결혼생활이 “상습적인 구타와 남편의 습관적인 방항으로 일관됐었다”면서 사건이 일어나던 날까지의 생활을 돌이켰다.

이들 부부가 결혼한 것은 지난 80년. 남편 조 씨는 남 씨가 자기를 만나려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자 한겨울 추위 속에서 40여일간을 남 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열정(?)을 보였다. 그의 품안에는 같이 숨겨져 있었고 남 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다. 남 씨의 어머니는 “이러다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 식구 모두가 죽겠다”면서 남편 조 씨와의 결혼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80년 가리봉동에 방을 얻어 실업상태이던 조 씨와 살림을 차린 것이 이들 부부의 첫 출발이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 조 씨는 당구를 치거나 싸움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장사일을 해서 돈을

버는 남 씨 쪽의 몫이었다. 남편 조 씨는 84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지만 한달이면 3~4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었다. 남 씨는 “혹시 여자가 돈을 버니까 저러나 싶어서” 장사를 그만두었다. 그래도 남편 조 씨의 생활은 마찬가지였다.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때리고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써버리는” 악순환은 계속될 뿐이었다.

남 씨는 이런 남편과의 생활에서 벗어나 보고자 가출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을 나올 때마다 남편의 위협에 못이겨 되돌아갔고 89년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친정으로 찾아와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기도 했다.

89년 이후 남편 조 씨는 제법 성실한 생활을 한 듯이 보인다. 버스회사에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아내를 때리는 일도 없어졌다고 한다. 성실해진 남편이 “나 혼자 벌어서는 집장만하기 어려우니 장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권유하자 남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시작했다.

신발 장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남편 조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더니 자가용을 사달라고 졸랐고 자가용이 생기고 난 후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

거나단 미움을 풀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장을 들락거렸다.

남 씨는 남편 조 씨가 가정내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안에 돈만 있으면 죄다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 주곤 했어요. 그때 제 돈벌이가 한달에 70만원에서 1백만원이 됐는데도 저축은 커녕 지금 9백만원 정도 빚을 안고 있어요.”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

사건 나던 날의 상황도 폭력과 방항의 연속선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 조 씨는 사건이 나기 이틀 전에도 남 씨에게 20만원을 요구했고 남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밥상을 뒤집어 었고 남 씨를 구타했다.

아내 남 씨는 사건 하루 전인 4일 밤부터 남편 조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5일 밤에는 마치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침에 한바탕 소란을 부리고 외출했다가 자정이 다 돼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누워 있었는데 다짜고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허리를 짓밟고 목을 조이고

머리를 벽에 짓찧었습니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외치며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남편의 모습에서 진정 ‘살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반항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남 씨의 주장이다.

이 순간부터 남 씨가 남편을 목졸라 죽이기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부엌으로 가는 남편 조 씨를 남 씨가 뒤에서 와이셔츠를 잡아당기자 남편은 뒤돌아 서서 남 씨를 장롱 쪽으로 몰아세웠다.

남 씨는 장롱문을 열고 넥타이를 한줄 꺼내어 손목을 감았다. 남편 조 씨는 2년 전에 술을 마시고 친구와 싸우다가 자기 손목을 유리로 그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때 동맥 정맥이 다 끊기고 손가락 3개를 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손목에 감긴 넥타이를 풀 수가 없었다. 손을 쓸 수 없게 된 남편 조 씨는 남 씨의 아랫배를 계속 걷어찼다. 남 씨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9살 난 아들 광현이에게 옆집 아저씨에게 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남편 조 씨가 손목이 묶인 채 방문을 막아서서 아들에게 “너 나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광현이는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남 씨는 아랫배를 계속 걷어채이면서도 넥타이를 움켜쥐고

있다가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면 서 남 씨는 방바닥에 흩어져 있던 넥타이를 집어 남편 조 씨의 목에 감고 넥타이를 팍 움켜쥐었다. 남 씨가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잠잠해졌다. 이때 남 씨는 장이 파열되고 임신 4개월의 태아는 유산되었다.

가정폭력의 전형성 보이는 교훈적 사건

이러한 남 씨의 이야기는 정당방위의 진술인가 아니면 살인자의 변명인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남 씨에게 동정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남 씨의 폭행치사혐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습관적인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또 이번 사건에서 숨진 남편 조 씨가 ‘폭력 남편’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많은

밝힌다. “그 누구도 맞을 이유 없다”고. 또 가정폭력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내구타는 가난 가정에서부터 판사, 교수, 성직에 이르기까지 파급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사회적 차에서 예방·치료해야 한다고 데에 뜻을 같이 한다.

이번 사건도 아내가 가정폭력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시가 폭력남편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결말이 오기 전에 해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구타당할 때는 속수책이다가 폭력의 병이 깊어져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야 아내를 폭행치사혐의 구속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누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는가?

남 씨의 경우처럼 매맞는 아내들도 극한상황에서는 폭력편에 살의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 지난번 어머니를 구타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두 명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 버린 사건처럼 폭력가정이 존재하는 또다른 가족간의 비극적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씨의 처절한 사연은 우리로 하급 이 여인에게 파렴치한 ‘남 살인범’으로 돌을 던질 수만 없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에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김효선·박미라 기